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은수미

보도자료 [2012.10.7. 총 2페이지]

담당자 : 허익수 비서관(010-6393-0880, hiss92@hanmail.net)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 외주위탁 은폐의혹

**고객상담센터 울산 이전에 따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4.5시간
무기계약직 상담원들에게 지원대책 제시 없이 외주위탁 몰아부쳐**

- 민주통합당 은수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012. 10.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울산 이전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들에 대해 배치전환 노력 없이 외주위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해부터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은 4.5시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수 없이 홍보를 해왔다.
- 이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4.5시간 일하자고 울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배치전환해서 기존에 해왔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 지난 8.23.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수미 의원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서면답변서에서는 “울산 이전은 전무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는 재취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였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이들에게 이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단 한번도 설명한 바 없고, 배치전환 등과 같은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은수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특히 문제는 내년에 이미 외주화 되어 있는 고객상담센터 업무를 추가 외주위탁하기 위해 약 36억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센터 콜업무 폭주에 따라 증액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원할 경우 이 예산으로 외주위탁되는 곳에 위탁하는 방안을 최근 고용센터 소장에게 일임 하였다.” 고 언급했다.
- 고용센터 소장은 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전화상담원 지회장 등 고용센터에 배치전환되어 계속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상담원들에게 “빨리 이전할지 외주위탁에 따를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외주위탁을 반대하는 경우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울산 이전이 결정된 이후 과연 고용노동부가 이들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4.5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무원과 똑같이 이전을 주장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 고 언급하면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고용노동부는 이들 전화상담원들의 고용유지 문제를 외주위탁으로 손쉽게 풀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고 언급했다.